

문수봉이여! 불멸의 그 업적 길이 전하라

해빛찬란한 사회주의 내 조국강산에 불빛이 절어가고 있다.

대지를 어루만지는 따스한 봄바람도, 산촌에 쉬임없이 흘러내려는 작은 시내물소리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 수령님의 위대한 한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만 같아 격정을 금지 못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조국땅 그 어디에나 헌력히 새겨져 빛나는 천세위인의 불멸의 자욱자욱을 감회깊이 더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70여년전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 우리 수령님의 거룩하신 영성이 송엄히 되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뜨시고 문수봉에 오르시여 친히 나무를 심으시며 국토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두정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문수봉!

그 이름 조용히 익워보느라면 내 나라의 푸른 숲에 어려여 있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애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파도쳐온다.

해방후 세계땅에서 미움껏 농사를 지어보려는 우리 농민들의 깃망은 비활이없이 높아졌다.

바로 그러한 시기 우리 수령님께서 농민들의 세기적 속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창한 사업을 펼치시는 속에서도 빙대한 산림조성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줄 우리 인민은 미처 알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수령님께서 몸소 한 조향 한 조향 작성하신 『도지문제에 대한 결정』의 구절구절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일본제국주의자의 소유였던 산림, 하천, 소택은 일체 몰수하여

인민들의 소유로 하며 그 관리련은 지방정권기관에 위임한다...

조국이 해방된 그해 10월에 발 표하신 『도지문제에 대한 결정』에 서 벌써 이렇듯 나라의 모든 산림을 국유화하기 위한 혁명적 조치를 취하시고 북조선립시민위원회를 조직하시는 역사적인 협의회를 산림국유화를 중요하게 강조하신 어버이수령님.

해방된 이들에 3월 몸소 모란봉에 오르시여 온 나라를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할 용대한 설계도를 투르히신 대에 이어 며칠 후에 발표하신 『북조선로지개혁에 대한 법령』에 서 산림국유화를 정책화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높은 애국적 열정을 가지며 산림조성사업에 참여할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주신 우리 수령님의 명도는 얼마나 비범한인간인가.

이렇듯 부강조국건설에서 산림조성사업을 중시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기에 주체 36(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 역사에 길이 빛날 자욱을 이로써 기념된다.

역사의 그날 문수봉에 오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은 참으로 아프고 쓰리시였다.

에로비니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문수봉이라고 불리우던 산이 강도 일제의 수탈에 자기의 몸을 잊고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우리 수령님의 심증이 오죽하겠으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우리를 기념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어느덧 어버이수령님께서 산중턱에 이르시자 문수봉은 푸른빛은 만세의 환호로 진감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나무를 심기 향양시민들의 감격파기쁨은 끝이 없었다.

민족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담배를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어 나무를 심으

시려고 땅에 삽날을 박으셨다. 그런 데 삽날이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지난날 나무가 무성하면 때에는 쌓아고 쌓아는 땅에 밭목이 푹푹 잡기는 토질 좋은 문수봉이었지만 힘한 세월의 비운이 이곳을 불보의 땅으로 만들어버린것이다.

몇년이고 자리를 훑어가시며 삽날을 박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푸른 땅을 파기 시작하였다.

나 무 구 뎅 이 름 다 과 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이 이깔 나무를 들고오는 것을 보시고 나무는 어린애와 같이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고 이르시며 뿌리 하나, 가지 하나 상황에 따라 그것을 두손으로 소중히 받아서 구이에 정성히 풀어놓으셨다. 그러시고는 훑어놓은 푸른 숲을 손으로 비벼 나무뿌리에 덮으시고 물을 푸르히 흘려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고 간곡히 강조하시였다.

흙먼지 날리는 문수봉에 오르시여 손수 나무를 심으신 어버이수령님.

70여년전 4월의 그날 문수봉에 나무를 심으시며 우리 수령님께서 그려보신 것은 푸른 숲을 푸르히 흘려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잊지 못할 4월의 불날을 소중히 새겨았으고 이 땅에 영원한 애국의 불길을 지펴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일군들이 그만하실것을 말씀드렸으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그냥 푸른 땅을 풀어가시며 계속 나무를 심어 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렇게 여러 그루의 나무를 심으셨을 때 한 일군이 마실 물을 올리며 그만 휴식하실 것을 간청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그렇게 심어서 애국의 산을 언제 다 푸르게 하겠는가고 하시며 자신께서 드셔야 할 물마저 어린 나무에 부어주시였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수봉은 아주 좋은 곳에 자리잡았다고 하여 문수봉에 나무가 우거지면 그나마 풍랑과 함께 풀어놓은 이 후파를 하루빨리 가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어느덧 어버이수령님께서 산중턱에 이르시자 문수봉은 푸른빛은 만세의 환호로 진감하였다. 해방된 조국땅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나무를 심기 향양시민들의 감격파기쁨은 끝이 없었다.

민족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담배를 보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산림조성사업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후대들에게 풍만한 산림자원과 풍부한 산림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산림을 애호하는가 애하는가 하는 것은 국에 국심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과 관계되는 문제이라고, 참으로 나라를

관련되는 문제이라고,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

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꾸리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하인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 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꾸리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발하는 이를다운 조국산천을 물려주자고 간곡히 교시하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후대들에게 수립이 우거지고 백화만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민족 대단결 업적은 민족사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망록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는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역사이다.

조국통일은 그 자체가 민족의 혈맥을 다시이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업이며 겨레의 속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

온 겨레를 한풀에 안울수 있는 숭고한 력당과 열회 같은 통도해,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불변불휴의 정력적인 명도로 민족대단결의 거창한 압력을 열어주시고 그 투철한 토대를 발표한다.

1.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은 독창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을 제시하고 혁명령도의 전기로 구현하여 조국통일의 주체를 마련하신 천세의 애국자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조국통일이라는 지론을 내세우시고, 민족의 대 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었으며 민족의 숨강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여 온 조국통일운동의 자랑찬 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민족대단결사상과 보선의 정당성, 그 불폐의 위력을 뚜렷이 파악한 혁신이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사상과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수령님께서는 이를 통해 민족적 단결의 고귀한 경험과 업적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만민재보이며 온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뜻한 밑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주체적 입장에 확고히 서시며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방법을 민족대단결 으로 나아가는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참으로 크나큰 노고를 바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과 조국통일5대방침,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 등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사랑과 리념, 정전과 주의주장, 계급과 계층의 힘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굳게 단합함에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과 보선의 철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를 분열했던 첫 날부터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지하에 본래 내세우고 온 겨레를 올애에 죽여주며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범위로 확대발전시킨 원동력이었다.

우리 겨레의 혈연만리를 헤치시며 이룩하신 민족단합의 고귀한 경험과 영광으로 민족의 대 단합을 이루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온 겨레가

마련하여 주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이 내외 반통일 분별주의 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해 속에서도 즐기차게 전진하여 온갖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민족대단결성업에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맘없는 헌신과 고고한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민족대단결위업실험에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국적업적을 후손들에게 길이 전하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희작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 강령』을 발표하신 25돐을 맞으며 이 비장록을 발표한다.

통일전선로선을 제시하시고 주체 35(1946)년 7월 복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위원회를 결성하고 조국통일 10대 강령의 민족대단결사상에 따라 전민족이 일치단결하여 행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면서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길 청석의 의지를 퍼력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의 혁사적 위업을 이룩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협의회는 통일에 국의 가치이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혁사적인 민족적 회합이었다.

민족분별의 위기가 드러웠던

임종한 시기에 국소수의 민족

반역자들을 제외한 북파 남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들의 폭넓은 회합이

마련되게 된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보선의 빛나는 승리였다.

조국통일위업의 초창기에서 이룩된 민족대단결의 고귀한 경험이 있

어 1970년대에 경제상태에 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둘째구가

열릴수 있었고 미제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두개 조선』 조작작들을 만들

호히 짓부시며 전민족적법위에서 자

주통일과 민족단합의 기운이 고조될

수 있었다.

내외 반통일 세력의 발악적

책동이 국도에 이르렀던 1980

년대 말~1990년대초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역풍을 파악해 짓부시며 북파

남, 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수많은 고전적 희작들을 발표

하시여 어버이수령님의 민족대단결

사상을 전진적으로 계승화하고 심화

발전시키였다.

국에족을 단결의 첫째가는 기준

으로 삼고 북파 남, 해외의 각계각층을

통일에 국의 가치이래 묶어세울데 대

한 사상은 치愆한 민족주체의 사상,

가장 숭고한 민족대단결사상이며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어버이수령님의 뜻과 유훈을 높이

발들어 민족대단결위업을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나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8. 15년 민족대회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여 겨레의 가슴속에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열망을 더

불어들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

간의 봄처럼 열매를 맺을 줄 알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민족대단결회인 것만큼 수령님의 생전

뜻이 전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반

들어 우리 당의 평도일에 통일운동을

힘 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민족대단결회인 것만큼 수령님의 생전

뜻이 전민족대단결의 사상을 반

들어 우리 당의 평도일에 통일운동을

힘 있게 전진시켜나간다는 것을 보

여주기 위해 특색있게 크게 하는 것

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은

도량과 용모으로 조국통일을 바라

는 사람이라면 정전과 주의장은 물론

불미스러운 과거도 끝나게 실현

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 소식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통포에 민족대단합의

세계를 이끌어온 이들이 있다.

우리 민족의 대 단결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온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뜨거운

증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 소식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통포에 민족대단합의

세계를 이끌어온 이들이 있다.

우리 민족의 대 단결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온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뜨거운

증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 소식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통포에 민족대단합의

세계를 이끌어온 이들이 있다.

우리 민족의 대 단결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온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뜨거운

증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 소식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께서는

원대한 조국통일구상과 한없이 넓은

도량, 뜨거운 통포에 민족대단합의

세계를 이끌어온 이들이 있다.

우리 민족의 대 단결 위업은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온 수령님께서는 그에 대한 뜨거운

증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한 평도와

세심한 가치 치심 속에 주체 83(1994)년 8월 15일 평양에서 제

5차 범민족대회가 개최되며 되었고 그 소식은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산림조성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애국의 마음 안고 펼쳐가는 푸른 숲

양덕군 일군들과 균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어 조선은 결심하면 반드시 한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문수봉에 오르시어 몽소 나무를 심으시며 나라의 모든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킬 용대한 구상을 펼쳐 주신 때로부터 7·1일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 날을 맞는 양터군 일군들과 균로자들의 심정은 류다르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멀고 험한 구지골에 찾아오시어 황금산의 력사를 펼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명도 업적을 누구나 빼내고 나도나도 산으로 올라 제순으로 키운 나무로 정성껏 심어가꾸며 군인의 산들을 푸른 숲으로 전변시킬 투쟁을 벌려온 이들이다.

그리하여 군인 산림조성사업에서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

산림복구전투의 시작과 함께 황금산, 보물산의 력사를 빛내이기 위한 투정은 더욱 고조되었다.

산림조성사업의 첫 공정인 나무모생산에서부터 일대 비약이 일어났다.

당정책판에서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는 판점을 가지고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

원들은 양묘장면적 확장과 온실건설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통이 큰 작전들을 펼쳐 전개하였다.

우리가 갑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당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며 나무모증산을 위해 힘과 지혜를 힘하였다.

또한 해당 단위들에서 심은 나루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말아끼는 힘에서 비롯된 산림

화학기술상과들을 세웠다. 그 결과 푸른 숲이 상당히 나무모증산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리성철지배인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다. 가까운 앞날에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킬 데 당의 높은 뜻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거둔 성과는 첫걸음을 내딛은 듯파악되었던 것이다.

더우기 궁벽한 산골로인 양덕군, 산림치료고도 실현무대인 구지풀에 까지 찾아오시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친목한 유훈을 기어이 펼쳐하라고 해도 그 힘과 당의 높은 뜻으로 산림복구전투성과를 더욱 확대하자면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여야 하였다.

나무모증산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옹위전이다.

그는 이런 판점에서 더 높은 나무모생산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 도제로를 보다 흔들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결과 쉬운 일은 아니었다. 조건은 불리하였고 부족한 것도 많았다.

나무모증산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었다.

나무의 일군들과 균로자들은 이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심은 나루들의 사률률을 높은 수준에 보장하기 위해 애썼다.

풀들이 키운 나무모들을 흙토대를 보다 흔들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얼마전 이와 관련하여 거상지구에서 진행된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은 텁농복합경영방법을 적

았다. 그럴수록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재침을 굳게 믿고 분발해 나섰다.

우리가 갑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당의 숭고한 뜻을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며 나무모증산을 위해 힘과 지혜를 힘하였다.

또한 해당 단위들에서 심은 나루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말아끼는 힘에서 비롯된 산림화학기술상과들을 세웠다. 그 결과 푸른 숲이 상당히 나무모증산에 도움을 주었다.

나무의 일군들과 균로자들은 자체적인 재침을 굳게 믿고 분발해 나섰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할 수 있게 하였다.

심은 나무들을 대한 사률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되었다.

나무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었다.

이들의 혁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에어린 나무들을 거두으려고 자제우는 멀기름이 되었다.

푸른 숲의 면적은 해마다 늘어났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간 텁농복합경영방법

도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

도제로를 보다 흔들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결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무모증산은 이와 관련하여 거상지구에서 진행된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은 텁농복합경영방법을 적

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군안의 산림감독원들과 산리용반원들은 조건이 제일 불리한 산의 웃속경사면에 대한 나무심기를 자체의 힘으로 해제해면서도 높은 사률률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해당 단위들에서 심은 나루는 자기들이 전적으로 말아끼는 힘에서 비롯된 산림화학기술상과들을 세웠다. 그 결과 푸른 숲이 상당히 나무모증산에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갑길은 오직 자력자강의 한길이라는 당의 숭고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할 수 있게 하였다.

심은 나무들을 대한 사률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이 이루어되었다.

나무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었다.

이들의 혁신적인 노력은 그대로 에어린 나무들을 거두으려고 자제우는 멀기름이 되었다.

푸른 숲의 면적은 해마다 늘어났다.

그뿐이 아니다.

최근간 텁농복합경영방법

도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

도제로를 보다 흔들리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결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무모증산은 이와 관련하여 거상지구에서 진행된 도적인 보여주기 사업은 텁농복합경영방법을 적

대전군에 나무모생산을 고장내기로 펼쳐나서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어 산림복구전투로 1단계 과업수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 중의 하나이다. 이

경우에는 이미 떨나무림조성사업과 더불어 산림복구전투로 전면전이 고성과로 펼쳐나온 것이다.』

군안의 많은 산들이 먹을것도 나오고 일울것도 나오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되어가고 있으며 그 데울 보고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령의 유훈판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드세한 불길속에서 미련된 군안의 산림과 균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군안 군들과 균로자들은 대중의 열정을 더해온 것이다. 그들이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더욱 흥미롭게 수행한 자랑만하고 새로운 승리를 행취하기 위하여 풋값은 올해의 불꽃나무심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이와 함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다.

한어름의 희어별속에서 매일과 같이 북주기를 진행하였고 장마철을 앞두고는 나무주위에 대한 길매기도 하고 그루사이에서 자라는 잡판목들도 바루 배모생산을 경제적으로 늘임으로써 군적인 나무모총생산량의 60% 이상에 해당한 뜻을 해갈하였다.

이와 함께 운장, 태흥지구를 비롯하여 군안의 곳곳에 세워판례에 국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갔

